

# 주부신행담

## 부처님 아니계신 곳 없으니 ①

4는 전쟁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지중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갔었다. 그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이었다.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과 선물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따라 갔던 것이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온 몸이 으스스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이젠' 소리도 듣기 싫었다. 더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선물의 유혹도 뿌리치고 서둘러 교회를 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남 송광사로 수학여행을 갔다. 송광사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어린 마음에도 어찌나 환희심이 나던지 넋을 잃고 부처님의 상모를 쳐다봤다. 또 향내음이 왜 그리도 좋던지, 전생애 불원이 있었기에 이러한가 혼자 생각해 보곤 한다.

13년전 나는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다. 하고 보니 시댁은 기독교 집안 이었고 남편은 장남이었다. 내가 기독교 집안의 딸머리가 되니 부처님께 귀의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집안이라 해서 삶은 내색 보이지 않고 묵묵히 생활했다.

시아머니께서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새키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네'란 대답만 드릴 뿐 가계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 몰래 불경을 공부했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독경하고, 불교사적도 많이 탐독했다.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까지 쳐가며 공부할 하도보니 <반어심경> 등 법화 때

제일 많이 독송되는 경들이 즐줄 외워졌다.

결혼한지 3년 후인 13년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년후 1주기 제사를 시어머니 뜻대로 기독교식인 추도식으로 모신후 큰 사고가 일어났다. 누가 보아도 차사고가날 장소가 아닌 가게앞에서사고가 난 것이다. 밤에 잠을 자려다말고 남편이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에 탔는데 큰 사고가 났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가는 남편을 극구 말릴 것을 하고 후회를 하게되었다. 왜자려다 말고 나갔느냐고 묻는나에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끌리는 듯하고 자꾸마음과 달리 몸이 말을듣지 않았다고 했다. 나로서는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큰 사고였다.

그 후 우리부부는 사고 수습을 하느라 며칠은 가게일도볼 수 없을 정도로정신이 없었다. 나는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유교식으로 모셔줄 것을 원하시어 장남인 우리 부부를 깨우쳐 주시려고 잡자려던 남편을 이끌고 나가 큰 사고를 내게 하신지 않았나 하는 열도당토한 의심이 자꾸만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어길수가 없어서 병어리 냉가슴 앓듯 따돌 수밖에 없었다.

다음해 또다시 우리 집안엔 시련이 닥쳐왔다. 그때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시아버지제사를 추도식으로 모신후였다. 당시 6살이던 아들이 가게 앞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어 어깨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한 달이나 입원을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시아버지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 다음 계속적으로 일어났기에 마음이 찡찡했지만 차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큰 시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테니 율계가 기독교식이 아닌 전통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남편과 상의를 하여 전통식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 후법현스님이 쓰신 불교식으로 제사모시는 법에 대한 글을 읽고지금 불교식으로 모시고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우리 집안엔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아마 기독교 집안 딸머리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이 있는 나를 일깨워주려고 그러한 어려움이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 꿈에 흰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옆구리서 뱀한마리를 떼어낸 후 두통과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 후부터 나는 더욱더 발심을 해 불교공부에 본격 매진했다.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나볼수 있고 절에 가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처처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께 나는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읽고 관음경, 발원문, 순으로 하루도 빠지지않고 기도정진을 하였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불보살님을관하고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런데 나는 몸이 너무나 아픈 시련을 겪어야 했다. 머리가 터질 것같은 통증에

어려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며칠을 생활해야 했다. 내가 몸져 누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업컨데 달친 격이라고 했던가. 위장병까지 생겨 소화가 되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은 나오지 않고 신경성이라고만 할뿐이었다.

나는 불보살님께 의지하고끈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했다. 어느날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다 잠이들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한분이 내 옆구리에서 뱀 한마리를 떼어내 어느 바위에 던지니 그 뱀이 바위에할썩 달라붙어



그림 · 이준석

떨어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머리를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던 나는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다.

불보살님이 나에게 감동해주신 것인가! 나는 은혜에 보답드리고자 더욱더 발심을 내어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나는 더 큰 발심을하고 가족들 몰래 가까운절로 새벽기도를 다녔다.

하루종일 가게 보느라 피곤했지만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부처님을 만난다는 환희로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며 날마다 108배를 했다.

그렇게 기도정진하기 시작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며칠 동안이나 보였다. 아버지께서 천도를 원하시던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 몰래 절에다 아버지 영가위패를 모시고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영가를 위해 기도했다. 집에서 49일 동안 <지장경>을 13품까지 독송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흠부다리나는 21번, 광명집안은 108번, 지장정근은 1080번을 영송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기도도 했다.

나는 49일 기도 회향 후 깨끗한 모래를 구해서 일곱 번 씻어말려서 하루에 광명집안 108번씩 영송하기를 21일 동안 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모셔진 아버지 산소에 가서부러드렸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어느 할머니 한 분과 아버지. 두분이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방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나는 꿈을 꾸었다. 그 후로그렇게 꿈에 보이던 아버지께서 꿈에나타나지를 알으셨다. 천도가 된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어느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께서 나를 어느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엔 넓은잔디밭이 있었다. 잔디 위에는 집 한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꿈을 꾸고 난 후 기독교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이 내가 정식으로 절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영문이 있게 됐다. <계속>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 사찰 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 찬덕의 연일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일등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과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일등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일 ■ 등통 + 비단 연일

### 팔모주름등 (원크)



###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짐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연꽃등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3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팔모주름등	육각등
				디자인 대구 여래기획 (053) 426- 3395-6
원통등	조림판모등	차결이등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공단(비단) 연일등 완성과정	비단연일	등통	완성연등	

개국 10주년  
www.bbsfm.co.kr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청주 FM96.7MHz

## 진흙속의 연꽃 처럼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불자들의 염원속에 태어난 불교방송이 영광과 시련의 10년을 뒤로하고 새천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는 미디어로서 새롭게 태어나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불자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포교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 BBS 불교방송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